

캔버라 한인성당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예물 준비	영성체	파 견
<풀더 16번> 사랑한다 나를	<풀더 2번> Here I am Lord	<풀더 15번> 꽃	<풀더 11번> 순례자의 노래

제 1독서 | 말라키 3,19-20

화답송 |

◎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려 주님이 오신다.

○(좌)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뿐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

○(우) 소리쳐라,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 누리와 그 안에 사는 것들. 강들은 손뼉 치고, 산들도 함께 환호하여라. ◎

○(좌)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 세상을 다스리려 그분이 오신다. 그분은 누리를 의롭게,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신다. ◎

제 2독서 | 테살로니카 2서 3,7-12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 알렐루야

복음 | 루카 21,5-19



by 김현진 작가(loveng zen)

오늘의 복음 - 루카 21,5-19

그때에 5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 예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 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6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 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7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에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8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9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10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11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12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13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14 그러나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15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16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더러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17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18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19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 가톨릭 교리

"우리 육신이 세상 끝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가톨릭 신앙이요, 사도들의 신앙입니다.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모든 불신을 밀쳐 두고, 그대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생각하십시오. 사람의 머리카락 하나도 가볍게 보시지 않는 구원자께서 사람을 가볍게 보시겠습니까? 그분께서 우리 영혼과 육신에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자 영혼과 육신을 취하셨고, 돌아가심으로써

그 육신을 내려놓으셨다가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죽음을 겁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설교집」214,11-12.1>

"인간은 참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천사들처럼 진리를 알 수 있는 능력과 선을 선택하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이들과 친교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과 같이 몸(Physical body)을 가지고 있어서 배고픔을 느끼고 피곤하고 목마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두 차원의 '사이'에서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신성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 우리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실 때 단순히 시신이 되살아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일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전에 라자로에게 해주신 바 있습니다. 유다인들의 희망도 결국 그런 것이었지요. 다시 육신을 되찾게 될 것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단순히 육신을 되돌려받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받게 되는데, 그 '이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더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 때 받으신 그 영광스러운 몸은, 예수님께 부족했던 어떤 영광을 더해 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새롭고 완전한 생명의 형태였기 때문입니다." "왜 굳이 그 모든 수고를 감당하신 걸까요? 만약 그게 더 큰 영광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육체와 영혼을 가진 인간으로 창조되었으며, 육체는 일회용 포장지나 임시적인 상자 박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바로 '나'라는 존재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내 인격 그 자체의 성사(sacrament)입니다 - 보이지 않는 것을 감각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요.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이 육체를 폐기하려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이 육체를 구원하시고 변모시키고자하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신비를 묵상하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로 이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 물리적인 육체(Physical body)를 통해 그것을 이루신다는 구체적인 현실입니다. 그리고 성체성사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Jesus' resurrected body)입니다. 그것은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던 다락방에 계셨던 바로 그 몸이며,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몸이고, 무덤에 묻히셨던 그 몸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체성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스럽게 되신 인성(the resurrected, ascended glorified humanity)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보통 음식을 우리 몸에 동화시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성체(Holy Communion)를 할 때,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몸에 동화시키시며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부활하신 몸의 일부로 만드실 것이며, 결국 우리에게도 우리의 부활한 육체를 주실 것입니다. 이야기로 '위대한 교환(great exchange)'이 아닙니까!"

- Dr.Scott Hahn (성경학자)

"기도의 체험" (1) - 안토니 블룸

기도하려는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매우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 듯 느껴질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부재를 느낀다고 해서 그분께서 존재하지 않으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존재 자체이시므로 근본적으로 부재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재란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안 계시는 듯 느낄 때 그 부재의 느낌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느님 앞에 서서 허공을 향해 소리치지만 아무 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사방을 쳐다보지만 그분은 아무 데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기도란 만남이며 관계라는 것, 즉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며 우리에게나 하느님에게나 강요할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현존을 느끼게 하실 수도 있고, 부재의 느낌만을 남겨 놓으실 수도 있는 이유는 이런 살아 있는 현실적 관계에서 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느님을 기계적으로 이끌어내거나, 만나고 싶은 순간에 그분께 우리를 만나 주시도록 강요할 수 있다면, 그런 것은 진정한 관계나 만남이 아닐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상이나 상상, 혹은 하느님 대신 우리 앞에 갖다 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우상과 맷는 관계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 있는 사람과 그런 관계를 맷을 수 없듯, 살아 계신 하느님과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관계는 서로 자유로울 때 시작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양방향에서 이루어진다는 관점을 가지고 기도로 맷어지는 하느님과 우리를 살펴본다면, 우리가 그분께 불평할 것보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불평하실 것이 훨씬 더 많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 중 겨우 몇 분 정도만 하느님을 위해 쓰면서, 이

시간에 그분께서 현존하지 않으신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아마 하느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실 23시간 30분 동안에는 "저는 너무 바쁩니다." 하고 대답했거나, 우리 마음과 의식이나 생활 속에서 그분께서 두드리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하느님의 부재를 불평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안 계실 때보다도 우리가 외면할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중략...)

우리는 그분께 무엇인가 받기를 원하지, 그분 자체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관계일까요? 친구 관계에서도 무엇인가 받을 생각만 하고 친구에게는 관심이 없다면 그 친구와 나누는 우정을 참된 우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친구가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될지 신경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친구 자체를 사랑합니까? 주님과 맷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과 저의 기도, 각자의 기도를 반성해 봅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생활에 관련된 어떤 것을 청할 때 그 기도는 얼마나 열정적이고 간절합니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온통 기도 안에 파묻히고 맙니다. 이때 우리가 하느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문제에 몰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걱정거리가 해소되기를 청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열심히 하다가,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기도 하려면 우리 마음은 순식간에 차가워집니다. 하느님께서 멀리 가 버리셨기 때문일까요? 아니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쓸는 열정이 하느님의 현존과 그분께 대한 신앙과 그리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열정은 우리가 기도하던 사람이나 어떤 일에 대한 애착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해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공지 사항

1. 대림시기 자선 바자회

교회는 대림 제 3주일을 '자선주일'로 지내며, 그리스도인 모두가 사랑의 구체적 실천을 통하여 다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자선은 하느님 사랑을 실천하는 한 가지 방법이며, 나눔의 신비를 체험하게 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대림시기를 보내면서, 우리 공동체에서는 자선 바자회를 갖고자 합니다.

- 11월 30일(대림 1주) & 12월 7일(대림 2주):

<미사 후, 성당 교육관에서 바자회 물품 모으기>

이웃들과 나누고 싶은 물품이나, 쓰지 않고 있던 물품들을 있다면 성당 교육관으로 기부 부탁드립니다.
(사목회에서 바자회 물품들을 분류 및 정리)

- 12월 14일: 미사 후, 자선 바자회 (간단한 먹거리)

* 도네이션 박스 혹은 cdf계좌로 자유로이 기부
* 모인 기부금은 전액 기부 (기부금 사용내역은 추후 주보를 통하여 공지드리겠습니다)

2. 여정 '시즌 6' - 영적 독서 모임

- * '영적독서 모임': 11월 18일(화) 저녁 7시
- * 모임을 위해 아래 분량을 읽어주세요
 - '기도의 체험' : ~ 45p
 - '굽어 돌아가는 하느님의 길' : ~ 51p

3. 공동체 식사 및 간식 나눔

- 다음주 주일(23일) 미사 후에 간식 나눔이 있습니다.
- 12월부터 1월까지 식사 및 간식 나눔이 잠시 방학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나눔 준비 및 뒷정리를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4. 소공동체 반 참여 및 이동 가능 안내

작년과 마찬가지로 현재 속해있는 소공동체 반에서 다른 소공동체 반으로 이동을 원하시는 분들은 11월 29일(토)까지 '성함, 세례명, 희망 소공동체반'을 적어서 성당 이메일 주소 혹은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해주신 내용은 12월에 새로이 선출되는 각 소공동체장 분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미사 참례자 수 |

11월 2일	유아·청소년: 20명	성인: 48명
11월 9일	유아·청소년: 17명	성인: 54명

| 온라인 묵주기도 모임 |

화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퀸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

일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3 West Ave, Queanbeyan, NSW

| 미사 후 뒷정리 |

이번주 (11월 16일)	마태오반
다음주 (11월 23일)	요한반

| 봉헌금 & 교무금 | (11월 8일 ~ 11월 14일)

봉헌금	\$ 240	
교무금	\$ 580	
고민지	구민식	권묘순
윤현태	이국원	전인철
	정은영	주정자
		김건혜

| 기도 지향 |

- * 본당 아이들 & 청소년들을 위해
- * 전쟁과 폭력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 *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연옥 영혼들을 위해
- * 이근화 프란치스코 형제님 건강을 위해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 이니셜이 아닌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